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457
----------	------

발의연월일 : 2025. 1. 13.

발 의 자 : 주철현 · 허 영 · 황운하
조계원 · 조인철 · 어기구
안호영 · 진성준 · 송기현
박균택 · 이병진 · 위성곤
문대림 · 문금주 · 김문수
천하람 · 한정애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바, 특히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재량적인 결정으로 압수 또는 수색이 무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반란죄, 내란죄 및 외환죄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

여 압수·수색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할 경우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신설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인 경우에는 제1항의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제13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10조제1항에 따른 장소의 책임자의 승낙은 요하지 아니한다.

제200조의6 전단 중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規定은”을 “제101조제4항, 제102조제2항 단서 및 제137조 후단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110條(軍事上 秘密과 押收) ①</p> <p>· ② (생 략)</p> <p><u><신 설></u></p>	<p>第110條(軍事上 秘密과 押收) ①</p> <p>·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인 경우에는 제1항의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p>
<p>第137條(拘束令狀執行과 搜索) 檢事, 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법원사무관등이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p>	<p>第137條(拘束令狀執行과 搜索)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u>이 경우 제110조제1항에 따른 장소의 책임자의 승낙은 요</u></p>

	<u>하지 아니한다.</u>
第200條의6(準用規定) 제75조,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拘束”은 이를 “逮捕”로, “拘束令狀”은 이를 “逮捕令狀”으로 본다.	第200條의6(準用規定) ----- ----- ----- ----- ----- ----제101조제4항, 제102조제2항 단서 및 제137조 후단은--- ----- ----- ---. ----- ----- -----.